

## 멜로디언 연주 자세와 주법

단원명	3. 즐겁게 신나게	교과서	46~47쪽
제재명	같은 가락 다른 느낌	지도서	88~89쪽

### 1. 멜로디언 연주 시 호흡 방법

노래를 부를 때와 마찬가지로 관악기나 멜로디언처럼 숨을 불어 넣어 소리를 내는 악기 연주에 있어 바른 호흡 방법은 복식 호흡이다. 복식 호흡을 잘하기 위해서는 횡격막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 양손을 옆구리에 대고 숨을 들이마실 때와 내쉴 때 횡격막의 팽창과 수축을 느껴 본다.

- ① 숨을 들이마실 때: 코로 숨을 들이마실 때는 재빨리 들이마신다.
- ② 숨을 내쉴 때: 천천히 고르게 내쉬도록 하는데, 이때 횡격막은 수축된다.

### 2. 멜로디언 연주 자세

멜로디언을 연주하는 자세는 앉아서 연주하는 방법과 서서 연주하는 방법, 그리고 소리를 낼 때는 비닐 파이프를 사용하는 방법, 마우스피스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앉아서 연주할 때는 평평한 책상 위에 멜로디언을 놓고 연주하도록 하고, 서서 연주할 때는 원손으로 멜로디언을 받치고 연주하도록 한다.



▲ 앉아서 연주할 경우



▲ 서서 연주할 경우



▲ 마우스피스를 사용할 경우

### 3. 멜로디언 주법

- ① 소리 내기: 입김이 새지 않을 정도로 취구를 가볍게 물고 연주할 음의 건반을 손가락으로 살며시 누르며 ‘후–’하고 숨을 불어 넣거나 ‘투–’하고 혀를 사용하여 숨을 불어 넣는다.
- ② 운지: 그림과 같이 달걀을 쥔 것처럼 손가락을 구부려 피아노를 치듯 손가락 끝에 힘을 주고 건반을 누른다.
- ③ 같은 음을 이어서 연주할 때: ‘후–후–’하고 손가락을 두 번 사용하며 두 번 모두 숨을 내쉬거나, 손가락을 고정하고 ‘투–투–’하고 혀를 사용하여 음을 낸다.
- ④ 이음줄, 레가토: 숨을 끊지 말고 계속 불어 넣으면서 손가락만 이동한다.
- ⑤ 스타카토: 혀로 짧게 ‘툭–툭–’하고 소리 낸다.

출처 김연진, '가락 악기의 효과적이고 연계성 있는 지도 방법 연구-초등학교 3학년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2007.

## 강강술래 노래 악보

단원명	3. 즐겁게 신나게	교과서	50~51쪽
제재명	강강술래 놀이마당	지도서	92~93쪽

### 1. 강강술래

중중모리장단

남도(전라도) 민요 | 국립국악원

메기는소리

받는소리

강 강 - 술 - 래  
전 장 라 군 도 우 수 영 은  
우 천 리 추 만 장 대 군 대 빛 날 대 첨 지 세 라

### 2. 자진강강술래

자진모리장단

남도(전라도) 민요 | 정미영 채보

메기는소리

받는소리

강 강 - 술 래  
뛰 어 보 세 뛰 어 - 보 세  
윽 신 윽 신 뛰 어 나 보 세

### 3. 남생아 놀이라

자진모리장단

남도(전라도) 민요 | 국립국악원

남 생 아 놀 아 라 출 래 출 래 가 잘 논 다  
어 화 색 이 저 색 이 곡 우 남 생 놀 아 라  
익사 적사 소 사리가 내론 다 청 주뜨 자아랑주뜨 자  
철 나 무 초 야 내 젓 가 락 나 무 접 시 구 강 캥

### 4. 개고리 개골청

자진모리장단

남도(전라도) 민요 | 국립국악원

개 고 - 리 개 골 청 방 죽 안에 왕 개 골  
왕 개 골 을 찾으 려면 양 - 팔 을 득 득 걷 고  
미나리방 죽을 더듬어 어응 - 어응 어응 낭 어응 어 라디야

## 5. 손 치기 발 치기

동살풀이장단

남도(전라도) 민요 | 천은영 채보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four staves of music in G clef, 4/4 time. The lyrics are written below each staff in Korean. The lyrics are:

손 치 기 손 치 기 손 으로 친 다고 손 치 기 발 치 기 발 치 기  
발 로 친 다고 발 치 기 앞 산에 뒷 산에 진달래 울 굿 불 굿-피 었 네  
진 달래 꽃 잎 똑 따서 진 달래 화전-만드 세 손 치 기 손 치 기  
손 으로 친 다고 손 치 기 발 치 기 발 치 기 발 로 친 다고 발 치 기



▲ 강강술래 놀이 모습

## 강강술래 놀이 설명

단원명	3. 즐겁게 신나게	교과서	50~51쪽
제재명	강강술래 놀이마당	지도서	92~93쪽

### 1. 강강술래-자진강강술래

원형의 대열로 서서 오른손은 앞사람과 맞잡고, 왼손은 뒷사람과 맞잡은 상태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간다. 상체와 시선은 원의 중앙 쪽으로 약간 비스듬히 향하고 노래의 한배에 따라 걷거나 뛴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원을 도는 행위는 한국의 모든 민속 예술의 원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시계 반대 방향은 원의 중심에서 보면 왼쪽으로 도는 것인데, 왼쪽은 일상성과는 반대되는 비일상성, 일종의 신성성을 의미한다.



▲ 강강술래 놀이 모습

### 2. 남생아 놀아라

‘남생이’는 민물에 사는 거북 모양의 동물을 부르는 순수한 우리말로, 남생이는 목을 등껍질 속으로 숨겼다가 내밀었다 하면서 기우뚱거리며 걷는데, 이 모습을 흉내 내면서 춤을 추는 놀이이다. 자진강강술래를 돌던 상태에서 계속하여 도는 상태 또는 돌던 사람이 멈춘 상태에서 몇 명이 원 안으로 들어가 노래에 맞추어 춤을 춘다. 남생이 역할을 맡은 놀이꾼은 남생이의 동작을 흉내 내며 보는 이를 웃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 남생아 놀아라 놀이 모습

### 3. 개고리 개골청

남생아 놀아라 놀이를 하던 상태에서 손을 놓고 원을 유지한 상태에서 자리에 앉는다. 둥글게 앉아 노래에 맞추어 동작을 한다.



▲ 개고리 개골청 놀이 모습

#### 4. 청어엮기-청어풀기

청어엮기는 물고기 ‘청어’를 굴비 엮듯이 엮는 것을 모방한 놀이이다. 청어는 서해에서 잡히는 물고기인데, 조선 시대에는 임금에게 진상해야 하는 품목 가운데 하나였다고 한다.

다른 놀이 또는 자진강강술래를 돌다가 ‘청어엮자’ 노래가 시작되면 한 장단을 부른 후 정해진 한 사람이 손을 끊고 놀이를 시작한다. 원을 깐 선두의 사람이 왼쪽으로 돌아서 맨 뒤 사람과 뒤에서 두 번째 사람의 손 밑으로 들어와 한 바퀴를 돌아서 제 자리로 돌아오면 뒤에서 두 번째 사람은 원손이 오른 어깨 위로 올려진 상태가 된다. 전체가 이렇게 되도록 청어엮기 놀이를 한다. 다 엮어지면 반대 방향으로 끼어 나와 차례로 돌아 나오면 엮인 손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된다. 마지막에 풀린 사람이 선두인 사람과 손을 잡아 다시 자진강강술래를 돈다.



▲ 청어엮기 놀이 모습

#### 5. 고사리꺾기

왕고사리를 많이 꺾어 풍요를 이루는 모습을 모방한 놀이이다. 놀이 중 한 사람씩 일으켜 세우는 것이 고사리를 한 개씩 꺾는 것을 의미한다. 자진강강술래를 돌다가 ‘고사리꺾자’ 노래가 시작되면 손을 잡은 상태에서 오른쪽을 보고 앉으면 선두가 일어나서 고사리꺾기 놀이를 시작한다. 왼쪽으로 돌아서 두 번째 사람과 세 번째 사람 사이를 끊어 두 번째 사람이 일어나도록 한다. 이 동작을 반복하여 마지막 사람까지 돌아 나오며 한 사람씩 일어나게 한다.



▲ 고사리꺾기 놀이 모습

#### 6. 덕석물기-덕석풀기

덕석은 곡식을 말릴 때 깔던 짚을 이용하여 만든 도구로, 비가 오면 곡식을 말리던 덕석을 말고 비가 그치면 다시 펴는 모습을 흉내 낸 놀이이다. 자진강강술래를 돌다가 ‘덕석물자’ 노래가 시작되면 선두가 원을 끊고 원 안의 진행 방향으로 들어간다. 안 쪽이 좁게 말리면 선두가 반대 방향으로 다시 풀어 나가서 다시 큰 원을 만든다.



▲ 덕석물기 놀이 모습

## 7. 손 치기 발 치기

자진강강술래를 돌다가 ‘기와밟기’ 노래를 하면 선두가 원을 끊고 두 명씩 짹을 지어 길게 한 줄로 선다. 메기는소리를 하는 사람이 “손 치기 하세, 자!”라고 외치면 다 같이 일렬로 서서 노래에 맞추어 손 치기 발 치기 놀이 동작을 한다. 노래가 끝나면 다시 손을 잡고 ‘자진강강술래’ 노래를 부르며 원형으로 뛰어가 선두와 마지막 사람이 손을 잡고 원형으로 만든다.



▲ 손 치기 발 치기 놀이 모습

## 8. 기와밟기

길게 한 줄로 늘어서서 앞사람의 허리를 잡고 등을 굽혀 길을 만드는데, 이것이 기와와 닮았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이전 놀이를 한 줄로 마무리하면 메기는소리를 하는 사람이 “지와밟세, 자!”라고 외친다. 한 줄로 선 사람은 허리를 굽히고 앞사람의 허리를 안고 왼쪽으로 머리를 넣는다. 마지막 세 사람 중 두 사람은 양손을 잡아 주고 한 사람은 허리를 숙여 만든 길 위로 천천히 걸어간다.



▲ 기와밟기 놀이 모습

## 9. 문지기

기와밟기 놀이를 할 때 양쪽에서 잡아 주던 두 사람이 문을 만들고 기와를 밟던 사람이 선두가 되어 기와밟기의 기와를 만든 대형대로 걸으며 문을 지나가도록 하는 놀이이다.



▲ 문지기 놀이 모습

## 10. 꼬리따기

꼬리따기는 곡식을 훔쳐 먹는 쥐를 잡는 행위로 표현된 놀이이다. 문지기 놀이를 하다가 메기는소리를 하는 사람이 ‘꼬리따기’ 노래를 부르다가 “꼬리 따세”라고 외치면 문을 만들었던 사람이 마지막으로 붙는다. 선두는 꼬리를 잡으려 하고 꼬리는 선두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도망다닌다.



▲ 꼬리따기 놀이 모습

출처 국립남도국악원·문화체육관광부, “진도 강강술래 DVD 해설서”, 국립남도국악원, 2010.

## 단소 오름길 ② 연습곡

단원명

3. 즐겁게 신나게

교과서

52~53쪽

제재명

단소 오름길 ②

지도서

94~95쪽

## ▶ 소금 장수 2

소금  
장수  
2

황청원  
작사  
—조광재  
자진모리장단  
작곡

\* 단소 오름길 ② 단계에 맞는 악보의 일부분만 수록하였으며 참고 자료 136쪽에 '소금 장수'의 앞부분 악보가 단계에 맞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仲	中	潢	淸惶	仲	中	林	임	潢	淸惶	潢	淸惶	仲	中	林	임
林	임			林	임			無	무			林	임		
無	무	潢	淸惶	無	무	林	임	林	임	潢	淸惶	無	무	林	임
無	무			無	무			仲	中			無	무		
		潢	淸惶			林	임			潢	淸惶			林	임
		無	무			林	임			潢	淸惶			林	임
△		林	임	△			△					△			
										汰	淸태				

## 거문고와 향피리

단원명	3. 즐겁게 신나게	교과서	56~57쪽
제재명	천년만세와 수제천	지도서	98~99쪽

### 1. 거문고

고구려 고분인 ‘무용총’ 벽화에는 현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이 있다. 17개의 폐 위에 얹혀 있는 4개의 현을 술대로 타고 있는 악기이다. 오늘날의 거문고가 16개의 폐 위에 얹혀 있는 3개의 현을 술대로 타는 것과 비교했을 때 대체로 비슷하여 거문고의 원형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 무용총 중 현악기를 연주하는 모습



▲ 거문고 연주 모습

거문고는 가야금과 마찬가지로 오동나무 공명통 위에 명주실로 만든 줄(6현)을 얹어 연주하는 악기이다. 가야금이 이동 가능한 기러기발 모양의 ‘안족(雁足)’을 가진 데 비해 거문고는 고정된 지판(指板, 폐)을 가지고 있고, 연주할 때는 오른손 손가락 사이에 술대를 끼고 이것으로 현을 통기고 뜯고 어루만지면서 연주한다. 거문고의 음색은 가야금에 비해 둔탁하고 용장하다. 더욱이 술대를 이용해 힘 있게 내려치는 순간, 현의 떨림과 공명통의 울림이 만들어 내는 시원한 소리는 그 어느 악기도 모방할 수 없는 독특한 느낌을 준다. 이런 특성 때문에 거문고는 조선 시대에 이르러서 줄풍류 정악을 발달시키는 데 한몫했다.

### 2. 향피리

향피리는 음량이 크고 끗끗하며 역동적인 음색을 지니고 있어 주로 관악 합주나 관현악 합주에서 주요 선율을 담당한다. “수제천”, “관악 영산회상” 등의 합주에서 쭉 뻗어 나가는 피리 소리의 풍모는 매우 당당하다. 그뿐만 아니라 향피리는 궁중과 민간의 삼현 육각에 편성되어 다양하게 연주되었다. 피리 산조나 ‘자진한잎’과 같은 독주곡도 향피리로 연주한다. 이 왕직아악부 출신의 명연주자 김준현은 정악 연주에서의 향피리 소리를 “새벽에 우는 황계(黃鶴) 수탉의 울음소리같이 끗하면서도 시원스럽고, 거친 듯하면서도 우람하다.”라고 표현하였다.

출처 송혜진, “국악 이렇게 들어 보세요”, 다른세상, 2002, 292~293쪽.

## 감상 악곡 해설

단원명	3. 즐겁게 신나게	교과서	56~57쪽
제재명	천년만세와 수제천	지도서	98~99쪽

### 1. 천년만세

“천년만세”는 풍류 음악 중에서 줄풍류 편성으로 연주하는 합주곡으로 ‘계면가락도드리’, ‘양정도드리’, ‘우조가락도드리’ 세 곡을 묶어서 부르는 곡명이다. “천년만세”는 수명이 천년만년 이어지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악곡의 길이가 짧고 경쾌한 세 개의 곡을 이어서 연주하는데, ‘보통 빠르게–빠르게–보통 빠르게’로 진행되어 색다른 흥취를 전해 준다. “영산회상”에 이어서 연주하기도 하고, 세 곡만을 연주하기도 한다. “영산회상”에 이어 “천년만세”를 연속해서 연주하는 것을 “별곡”이라고 한다.

‘계면가락도드리’는 1841년에 편찬된 “삼죽금보”에 처음으로 나타난다. “삼죽금보”에 보이는 ‘계면가락도드리’의 이름은 ‘계면가락제이’, ‘계면가락더리’이다. 단악장의 악곡이며 총 41장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장단은 타령장단이다. ‘양정도드리’의 명칭은 거문고의 주법에서 온 것으로, 두 청이 연속으로 된 도드리라는 뜻이다. 풍류 음악 가운데 속도가 가장 빠르고, 옥타브 관계에 있는 거문고의 2음(이것을 ‘양청’이라고 한다)을 번갈아 연주하면서 선율을 변주하여 흥을 돌운다. ‘우조가락도드리’는 ‘양정도드리’와 같이 ‘웃도드리’의 매 장단에서 2개의 주요 음을 추출하여 변주한 악곡이다. ‘양정도드리’는 추출한 2음 앞에 거문고의 문현을 먼저 연주한다. 따라서 먼저 출현하는 문현은 약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주요 음이 강하게 연주하는 데 반하여 ‘우조가락도드리’는 먼저 나오는 음이 강하고 그 후속 음을 약하게 연주한다.

### 2. 수제천

“수제천”은 궁중 음악의 가장 대표적인 곡이다. 조선 시대에는 임금과 신하가 함께 예를 갖추는 의례에서 왕세자가 절할 때나 궁중의 각종 연회에서 관악 합주 편성으로 연주되었다. “수제천”이라는 곡명은 음악을 듣는 이들에게 하늘처럼 영원한 생명이 깃들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수제천”的 원곡명은 ‘정읍’으로 삼국 시대 백제의 노래에 기원을 두고 있다. ‘정읍사’를 노래하던 성악곡이 기악화하여 현재에 이르는 곡으로 ‘정읍’ 또는 ‘빗가락정읍’이라고도 한다. “악학궤범”에서는 “수제천”이 궁중 무용의 하나인 무고의 반주로 사용되었다고 전하는데, 이때 노래가 함께 불렸고, 그 노랫말은 ‘정읍사’였다고 한다. 고려 이후 무고를 추며 ‘정읍사’를 노래하던 음악이었으나 조선 중기 이후로 기악화한 것이다.

“수제천”은 피리 2, 대금 1, 해금 1, 장구 1, 좌고 1이 기본 편성인 삼현 육각에, 저음역의 현악기인 아쟁과 고음역의 관악기인 소금을 보완하여 풍성하고 화려한 어울림을 연출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각 악기를 복수 편성하기도 한다. “수제천”은 전체 4장의 본악구와 각 장과 장 사이에 들어 있는 연음구로 이루어져 있다. 연음구에는 주선율을 연주하는 피리가 쉬는 동안 대금, 소금, 아쟁, 해금이 주선율을 연주한다. “수제천”的 빠르기는  $\text{♩}=30$  정도로 아주 느린 편이고, 선율의 진행은 장구와 좌고의 장단 패턴에 의해 단락을 이룬다. 장단 패턴은 규칙적으로 반복되지만, 장단을 구성하는 박자의 시간 단위가 불규칙하기 때문에 경외감과 신비로움을 자아낸다. 전곡 연주 시간은 약 16분 내외이며 전곡을 압축해서 연주할 때는 보통 1장과 4장을 붙여 연주한다.

출처 국립국악원 > 국악사전,

국립국악원 e국악아카데미 > 국악해설



▲ “천년만세” 연주 모습



▲ “수제천” 연주 모습

## 옛 그림 속 우리 음악

단원명	3. 즐겁게 신나게	교과서	56~57쪽
제재명	천년만세와 수제천	지도서	98~99쪽

## ▶ 무동

김홍도가 삽십 대 후반에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풍속화첩 25쪽 중 한 폭으로 무동이 삼현 육각 반주에 따라 춤추는 모습이다. 악대는 피리 2, 대금 1, 해금 1, 장구 1, 좌고 1이고, 배경이 거의 생략된 바탕 위에 각 소재들만 부각하여 묘사한 것이 특징이다. 악사의 모자와 복식을 보면 장구, 피리 1명, 대금 악사는 갓을 쓰고, 도포보다 소매의 폭이 짧은 두루마기 형태의 옷을 착용하고 있으나, 피리 1명과 좌고, 해금은 쾌자를 착용하고 있는 것이 차이점이다. 조선 시대에는 착용하는 모자와 의상에 따라 신분을 나타내는데, 악사의 모자와 의상이 다르다는 것은 같은 소속이 아님을 말해 준다. 전립 형태의 모자와 쾌자를 착용한 악사는 궁중에 속한 세악수 또는 취고수일 가능성이 높다. 관청에 속해 있는 악사와 민간의 악사가 함께 연주하는 장면인 것이다. 악기를 연주한 모습도 일반적인 연주 자세와 다른 점이 발견된다. 좌고를 치는 악사는 북채를 두 개 들고 연주하고 있으며, 장구 악사는 바닥에 악기를 완전히 내려놓지 않고 무릎 위에 걸쳐 놓고 있다. 또한 대금은 오른손과 원손을 바꾸어 연주하고 있으며 해금 악사의 원손은 손등이 뒤집어져 있다.



▲ 김홍도, '무동'

출처 국립국악원, “조선 시대 음악 풍속도 I”, 민속원, 2009, 236쪽.  
국립국악원 공식 블로그

## 우리나라 관악기

단원명	3. 즐겁게 신나게	교과서	60~61쪽
제재명	관악기와 친해지기	지도서	102~103쪽

### 1. 대금

대금은 대나무 가운데 가장 굵고 곧은 황죽 또는 골이 깊게 파인 쌍골죽으로 만든다. 지공은 여섯 개이고 아래쪽 끝에는 ‘칠성공’이 있다. 취구와 지공 사이에 떨림소리를 내는 구멍이 하나 더 있는데, 이 구멍을 ‘청공’이라고 한다. 청공에는 갈대 속의 얇은 막으로 만든 ‘청’을 붙이는데, 찢어지기 쉬워서 덮개인 ‘청가리개’를 씌운다. 취구에 입김을 불어 넣으면 청이 울리면서 여러 가지 떨림소리가 난다. 대금은 소리가 풍부하고 음높이를 조절하기 쉬워 독주곡이 많고, 다른 악기 소리와도 잘 어울려서 여러 악기가 함께 연주할 때도 빠지지 않는다.



### 2. 향피리, 세피리, 당피리

우리 조상들이 오랜 옛날부터 만들어 써 온 피리를 ‘향피리’라고 한다. 고려 시대에는 중국에서 ‘당피리’가 들어와 향피리와 당피리를 같이 쓰게 되었다. 향피리와 같지만 크기가 작은 ‘세피리’도 있다. 피리는 긴 대나무에 구멍을 뚫어 만든다. 당피리가 향피리에 비해 두꺼우나 길이는 향피리가 더 길다. 세 가지 피리 모두 지공은 앞에 일곱 개와 뒤에 한 개, 모두 여덟 개가 있다. 입김을 불어 넣는 위쪽 구멍에는 끝을 납작하게 만든 대나무 껍질 조각을 끼우는데, 이것을 ‘서’라고 한다. 대나무 속껍질을 다듬어 두 겹으로 만든 서는 물에 담가서 불린 다음에 써야 망가지지 않고 끝이 벌어져 쉽게 숨을 불어 넣을 수 있다.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어서 제례악과 연례악을 비롯하여 풍류 음악, 시나위, 산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음악 갈래에 쓰인다.



### 3. 단소

단소는 오래된 황죽이나 오죽을 다듬어 만들며, 대나무 양쪽에 골이 파인 것을 으뜸으로 쳤다. 지공은 앞에 네 개, 뒤에 한 개를 뚫고 위쪽 끝에는 반달꼴 구멍을 팠다. 여기에 입술을 대고 입김을 불어 넣으면 반은 대나무 통 안으로 들어가고 반은 밖으로 새어 나가는데, 들어간 입김이 대나무 통을 울리면서 소리 내는 악기이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불기 쉽도록 플라스틱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대나무로 만든 단소의 소리가 활씩 깊이가 있다. 단소는 소리가 맑고 깨끗하며 높은 소리도 잘 내며 자잘하게 꾸미는 소리도 자유롭게 낼 수 있다. 옛날 선비들은 방에서 현악기를 즐길 때 단소를 함께 썼다. 시조를 읊거나 가사나 가곡을 부를 때는 단소로 반주를 넣기도 했다.



### 4. 소금

우리나라 관악기 중 가장 높고 맑은 소리가 나며 연주법은 대금과 같다. 소금도 대금처럼 황죽이나 쌍골죽으로 만들며, 구슬이 구르는 것처럼 소리가 맑고 고운 데다 꾸밈음도 풍부하고 화려하다. 이처럼 소리가 두드러지다 보니 다른 악기와 함께 연주할 때는 한 대만 두었다. 대금, 중금과 함께 ‘신라 삼죽’이라 불리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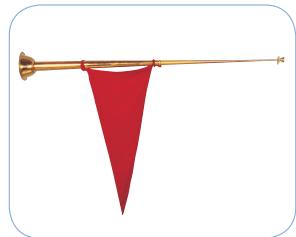
## 5. 태평소

태평소는 세상이 두루 편안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름에 담겨 있는 악기이다. ‘날라리’, ‘새납’, ‘호적’, ‘호가’라고도 한다. 태평소 몸통은 매실나무, 산유자나무, 대추나무, 뽕나무, 벼드나무와 같이 단단한 나무로 만든다. 나팔처럼 벌어진 끝 쪽은 따로 만들어 붙이는데, 구리로 만들어서 ‘동팔랑’이라고 부른다. 지공은 여덟 개이고, 취구에는 갈대로 만든 작은 ‘서’를 쇠붙이에 꽂은 다음 입에 물고 분다. 몸통 크기가 작지만 제법 크고 높은 소리가 난다. 풍물놀이와 ‘대취타’ 등에서 빠질 수 없는 악기이다.



## 6. 나발

나발은 놋쇠로 만들며 그 생김새는 긴 대롱같이 생겨 길이가 1m 남짓으로 꽤 길다. 입에 대고 부는 쪽은 굵기가 가늘지만 끝으로 갈수록 점점 굽어져서 맨 끝은 나팔꽃처럼 활짝 펴진 모양이다. 길이가 긴 나발은 세 토막으로 나뉘어 있다. 안 쓸 때는 넓은 쪽으로 밀어 넣어 짧게 만들 수 있어서 가지고 다니기 좋다. 지공이 없어서 한 가지 소리만 내는데, 나발 길이에 따라 음높이가 다르다. 나발은 처음에는 군대에서 신호를 주고받을 때 쓰다가 차츰 군례악 등에서 연주하게 되었다.



## 7. 생황

생황은 밖으로 몸통을 만든 다음 대나무 관을 꽂아 불었던 악기이다. 박이 잘 깨지다 보니 요즘에는 나무를 깎아 울림통을 만든다. 몸통에 꽂힌 대나무 관들은 봄볕을 받아 돋아나는 새싹들처럼 생겼다. 생황을 불면 하모니카 소리 같은 맑은 소리가 나는데, 여러 가지 음이 어우러져 화려한 소리를 낼 수 있다. 몸통에 꽂은 대나무 개수에 따라 생황 이름을 나누어 부르기도 한다. 대나무 관이 열세 개인 것은 ‘화’, 열일곱 개인 것은 ‘생’, 서른여섯 개인 것은 ‘우’라고 했다. 그 가운데 조선 시대에 많이 썼던 ‘생’이 지금까지 생황으로 전해지고 있다. 취구는 몸통 옆에 있으며 구리나 나무로 만든다. 대나무 관 아래쪽에 있는 지공을 막았다 열었다 하면서 소리를 낸다.



## 8. 훈

훈은 흙을 둥글게 빚어서 만든 악기이다. 흔히 진흙이나 기와 만드는 흙을 쓰며 다 빚고 나면 약간 볼록한 위쪽에 취구 하나를 낸다. 지공은 앞에 세 개, 뒤에 두 개를 뚫는다. 그리고 불에 굽는데, 굽기 전에 잿물을 발라 매끈하게 만들기도 한다. 어떤 진흙을 쓰고 두께나 속 넓이를 얼마나 잡는지, 얼마나 오래 굽는지에 따라 훈 소리가 달라진다. “악학궤범”에서는 훈을 두고 ‘물과 불이 어울려 소리 내는 악기’라고 하였다. 훈 구멍이 여섯 개인 것은 물을 뜯하는 숫자 6과 통하고, 위쪽이 뾰족한 생김새는 불과 닮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훈은 두 손으로 감싸듯이 쥐고, 위에 있는 취구에 아랫입술을 댄다. 입김을 불어 넣으면서 손가락으로 지공 다섯 개를 막았다 열었다 하면 깊고 그윽한 소리가 난다.



## 9. 나각

나각은 큰 소라 껍데기를 재료로 하여 만든다. 뾰족한 소라 껍데기 꽁무니를 갈아서 구멍을 낸 다음, 입김을 불어 넣는 취구를 만들어서 끼운다. 궁중에서 연례악과 제례악을 연주하는 데 쓰거나 씩씩하게 부는 악기라 하여 군례악을 연주할 때도 사용하였다. ‘대취타’를 연주할 때 나발과 번갈아 불면서 음악에 뼈대를 세워 준다.



출처 윤혜신, “겨레 전통 도감-국악기”, 보리출판사, 2009, 130~148쪽.

## 서양 관악기

단원명	3. 즐겁게 신나게	교과서	60~61쪽
제재명	관악기와 친해지기	지도서	102~103쪽

### 1. 피콜로

피콜로는 플루트의 높은음보다 더욱 높은 음역이 필요해 만들어진 것으로, 관의 길이는 플루트의 약 반 정도이고 키의 기구도 플루트를 축소한 형태이다. 음역은 플루트보다 높지만 보표에 적을 때는 한 옥타브(8도) 낮게 기보한다. 주법은 플루트와 흡사하며, 관현악 연주에서는 색채감을 더해 주는 역할을 한다.



### 2. 플루트

플루트는 수천 년에 걸쳐 전 세계 연주에서 사용되어 왔다. 악기에 부착된 키를 조작하여 연주하는 악기로, 리드가 없으며 몸의 오른편에서 수평으로 잡고 연주한다. 소리는 입술로 조절된 공기의 흐름을 헤드 조인트(악기를 세 등분으로 나눌 때 가장 윗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는 열린 구멍에 넣어 만든다.



### 3. 오보에

오보에는 두 장의 리드를 가진 목관 악기로, 그 길이는 약 70cm 정도이다. 머리 부분에는 갈대 줄기로 만든 두 장의 리드를 입술로 물고 공기를 불어 넣어 리드를 개폐·진동시킴으로써 소리를 낸다. 악기 본체는 윗관, 아랫관, 벨의 세 부분으로 나뉘며, 리드 부분은 윗관의 머리에 붙여진다. 오보에는 겹리드(두 장의 리드) 악기로서 공기가 들어가는 구멍이 작아 불어 넣는 공기의 양은 목관 악기 중에서 가장 적고 들이마시는 공기도 되도록 조금씩 내쉬어 숨을 멈추고 있는 듯한 상태가 많으며, 그 때문에 긴 음표나 악구를 연주하는 것이 가능하다.



### 4. 클라리넷

클라리넷은 한 개의 리드를 갖는 원통형의 목관 악기로, B♭조와 A조의 악기가 있다. 일반적으로 쓰이는 클라리넷은 B♭조이며 이는 관현악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언뜻 보기에 클라리넷은 리코더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리코더는 악기 맨 윗부분에 있는 취구(마우스피스)를 입에 넣고 공기를 불어 넣어 소리를 내는 반면, 클라리넷은 입에 취구를 깊숙이 집어넣고 위쪽 앞니와 입술로 잡은 후에 취구에 바람을 불어 넣어 고정된 넓은 리드를 진동시키며 소리를 낸다.



## 5. 바순

바순은 목관 악기 중에서 가장 음역이 낮은 악기로, 오보에와 같이 겹리드를 사용한다. 낮은 음자리표 또는 높은 음자리표의 보표를 사용하여 실음을 악보에 기입한다. 낮은 음역은 힘차고 윤택한 음색을, 중간 음역은 부드러운 음색을, 높은 음역은 거칠면서도 부드러운 음색을 낸다. 전체적으로 조용한 느낌의 악기로, 그 독특한 음색은 아주 희귀하면서도 쉽게 다른 악기들과 어울릴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악기이다.



## 6. 호른

호른은 원추형의 벨브식 금관 악기 중 하나로서, 관현악이나 관악 편성 실내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과거에는 자연 배음으로만 연주하였으나, 후대에 벨브가 발명되어 반음계를 연주할 수 있게 되었고, 현재는 벨브식 호른을 연주한다. 호른은 음정의 예리한 감각을 통해 입술의 조절로만 만든 가느다란 공기 줄기에서 정확한 음정을 이끌어야 하므로 연주하기 까다로운 악기군에 속한다.



## 7. 트럼펫

트럼펫은 힘 있고 공격적인 음색을 내는 금관 악기로, 마우스피스에 입술을 대고 호흡을 불어 넣어 소리를 낸다. 트럼펫의 화려한 음색은 원통형 구조에 기인하는데, 현재 관현악에서 사용되는 트럼펫은 벨브형 트럼펫이며 이는 20세기에 들어와 일반화된 것으로, 놋쇠 관을 등글게 휘어 감은 모양이다. B♭조 트럼펫이 가장 널리 쓰이고, C조 트럼펫도 관현악곡에서 종종 사용된다.



## 8. 트롬본

트롬본은 오른손으로 악기에 부착된 긴 슬라이드를 잡고, 연주자의 몸 쪽으로 슬라이드를 당기거나 밀어내는 형태로 슬라이드를 세밀하게 움직여서 음정을 만들어 내는 악기이다. 기계적으로 소리의 음정을 결정하는 벨브가 없어서 트롬본 주자는 자신의 소리를 듣고 음정을 조절하고 다른 연주자들의 소리에 맞춰 자신의 음높이를 조절해야 한다. 굵고 부드러운 음색을 내어 예로부터 교회 합창 반주에 사용되었고 포르티시모의 극적인 효과를 낼 수 있어 관현악이나 극음악에 많이 사용되었다.



## 9. 튜바

튜바라는 명칭은 원래 로마 시대의 짧은 트럼펫의 명칭이었으나, 그 뒤 수많은 변천을 거쳐 현재는 금관 악기 중 베이스로서 관현악에 사용되는 악기를 지칭한다. 벨브 장치를 가진 커다란 악기로, E♭이나 B♭조의 베이스 소리를 낸다.



**출처** 아타라 벤토빔·더글러스 보이드, “악기 여행”, 북스힐, 2004, 61~64쪽.  
편집부, “음악 사전”, 세광음악출판사, 1987, 374~387쪽.

## 감상 악곡 해설

단원명	3. 즐겁게 신나게	교과서	60~61쪽
제재명	관악기와 친해지기	지도서	102~103쪽

### 1. 피리 산조

피리로 연주하는 산조로 여러 장단에 맞춰 독주하는 민간 기악곡이다. 산조는 19세기에 유행하던 독주곡 형식의 기악곡인 심방곡에서 유래된 것으로, 조선 후기 최옹래에 의해서 연주되었다고 하나, 지금은 그 실체를 알 수 없다. 일제 강점기 충청도 출신인 한성준이 피리 시나위 음반을 빅타나 콜롬비아 유성기 음반에 취입한 바 있고, 해금·통소 등의 악기와 진양조·평타령 등의 산조 장단의 합주를 취입한 바 있으므로 이 시기 피리 산조가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 한성준 이후 오진석, 지영희, 이충선 등이 피리 산조를 구성하여 연주한 바 있다.



오진석의 피리 산조는 이생강에 의해서 이어졌고, 이생강에게서 오진석의 가락을 배운 정재국이 이를 기반으로 피리 산조를 구성하여 정재국류 피리 산조로 전승하고 있다. 지영희의 가락은 박범훈이 정리하여 박범훈류 피리 산조로 전승되고 있고, 이충선의 산조는 서한범류 피리 산조로 전승되고 있다. 최근 짜인 서용석류 피리 산조는 한세현에 의해서 전승되는 중이다.

출처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음악”, 국립민속박물관, 2009.

### 2. 청성자진한잎

‘청성자진한잎’은 단소나 대금으로 연주하는 독주곡으로 ‘청성곡(淸聲曲)’ 또는 ‘요천순일지곡(堯天舜日之曲)’이라고도 한다. ‘청성(淸聲)’의 청(淸)은 ‘맑다’는 말이 아니고 ‘높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삭대엽(數大葉)은 잣은(數) 한(大) 잎(葉)으로 가곡(歌曲)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청성자진한잎’은 현행 가곡 이삭대엽을 변주한 곡인 가곡 ‘태평가’를 다시 높은 음역으로 변화시킨 곡이다. 낮은 음역의 태평가 대금 반주 가락을 2도 높은 조(調)로 이조(移調)하여 대금의 특징적인 음색이나 주법에 맞게 2도 높여진 선율을 다시 옥타브 위로 올린 후 복잡한 장식음을 첨가하거나 특정 음을 연장하여 변주시킨 곡이라 할 수 있다. 관악기의 특징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장식음의 처리나 길게 뻗는 음의 길이 등을 연주자의 자유로운 표현에 맡겨 연주하는 곡이다.

출처 장사훈, “최신 국악총론”, 세광음악출판사, 1991, 314~315쪽.



▲ 대금으로 연주하는 ‘청성자진한잎’



▲ 단소로 연주하는 ‘청성자진한잎’

### 3. 모차르트, 클라리넷 협주곡(K.622) 가장조 2악장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에 삽입되면서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다. 모차르트는 이 작품을 그의 친구인 빈 궁정악단 연주자 안톤 슈타들러에게 헌정하려고 바셋 클라리넷(Basset Clarinet, 1770년대 고안된 F조 또는 G조 클라리넷으로, 클라리넷의 저음역에 E♭, D, C♯, C를 추가하여 음역을 확장한 베이스용 클라리넷) 음역으로 작곡하였다. 이 협주곡은 3악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케스트라와 독주 악기 간의 절묘한 조화 및 독주 악기의 절제가 특징이다. 특히 2악장 **Adagio**는 실내 악곡적인 분위기로 현악기 반주와 함께 흐느끼는 듯한 클라리넷의 선율을 담고 있다. 모차르트가 사망하던 해에 작곡하여 마지막 협주곡이 되어 버린 이 작품은 4개의 합주부와 3개의 독주부가 번갈아 연주하는 바로크 리토르넬로 형식을 연상케 하지만, 각 독주부가 제시부, 발전부, 재현부 역할을 하며 주요 부분의 구성 요소와 조성 체계가 소나타 형식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소나타 형식의 원리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Adagio**

**출처** 박지영, ‘모차르트 클라리넷 협주곡 K. 622의 구조 분석-서양 음악학 제19권 제3호’, 2016, 47~73쪽.

### 4. 엔니오 모리코네, 가브리엘의 오보에

‘가브리엘의 오보에(Gabriel's Oboe)’는 1986년 영화 “미션”的 메인 테마곡이다. 이탈리아 작곡가 엔니오 모리코네가 작곡하고 요요마, 홀리 고닉 등 수많은 아티스트에 의해 편곡되었다. 하프시코드의 리듬 위에 오보에를 중심으로 아름다운 선율이 흐르며 그 속에 현악기가 만들어 내는 풍부한 음향과 조화를 이룬다.

**Andante**

**출처** 계영란, ‘엔니오 모리코네 영화 음악의 성부 편성의 선율적 경향’, 상명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 논문, 2009, 59쪽.